

## 강원영상위,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감독 추상미를 만나다' 제3회 찾아가는 영화토크 개최

- 호국보훈의 달, 6월 맞아 한국전쟁 배경으로 한 감동 실화 다큐멘터리 영화 선정
- 배우 겸 감독 '추상미' 초청하여 관객과 이야기 나누는 영화토크 행사 마련
- 오는 6월 17일(월) 저녁 7시 CGV 춘천명동, 홈페이지서 사전신청 접수 시작

□ 강원영상위원회(위원장 방은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7일(월) 저녁 7시 CGV 춘천명동에서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가 있는 '찾아가는 영화토크(이하 영화토크) - 감독 추상미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고아 1,500명과 8년 동안 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본 폴란드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 바탕의 다큐멘터리다. 감독 추상미와 탈북 배우 이송이 직접 폴란드로 떠나 흔적을 쫓아 기록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 배우 추상미가 직접 제작 및 연출, 주연, 내레이션까지 맡으며 감독으로 변신해 큰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2018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으며, 2018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에서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이번 영화토크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2018)를 상영하고 감독 추상미와 관객들이 함께 영화로 제작하게 된 배경과 뒷이야기 등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 '찾아가는 영화토크'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도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입란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6월 16일(일)에 개별 공지된다.

□ ‘찾아가는 영화토크’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wfilm.kr](http://www.gwfilm.k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ogwfil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기획사업팀(033-240-1379)을 통해 가능하다.

□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뼈아픈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 영화를 통해 상처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며 “공산국가였던 폴란드에서 지내며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추상미 감독과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 한편,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일환의 도내 지역민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찾아가는 영화토크’ 는 지난 해 보다 담론 형성을 위한 시즈널 이슈, 사회 이슈에 맞춘 영화들을 선정, 상영과 함께 초청 게스트와 관객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도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정민서 사원(☎033)240-13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영화토크  
세번째

감독 추상미를 만나다

---

CGV 춘천명동  
**2019.6.17(월) 19시**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 폴란드로 간 아이들(2018) 중


게스트	감독 추상미	문의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033-240-1379
모데레이터	《8월리아, 바람이 머무는 곳》촬영감독 김성태	주최	포토포드, 강원문화재단
신청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주관	GFC 강원영상위원회

찾아가는 영화토크  
세번째

감독 추상미를 만나다

---

CGV 춘천명동  
**2019.6.17(월) 19시**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 폴란드로 간 아이들(2018) 중

게스트	감독 추상미	문의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033-240-1379
모데레이터	《8월리아, 바람이 머무는 곳》촬영감독 김성태	주최	포토포드, 강원문화재단
신청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주관	GFC 강원영상위원회

